

대한구강해부학회를 포함한 몇몇 치의학단체 표상(表象)들에 관한 소고(小考)

전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박 병 건*

일반적으로 많은 단체들이 해당 단체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표상(휘장, 상징, emblem, symbol, logo, mark)들을 가지고 있다. 각 단체의 표상에는 해당 단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특별한 그림이나 문자, 숫자 및 색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구강해부학회(이하 '본 학회')도 그림1과 같은 학회의 표상을 갖고 있다. 특히 본 학회의 창립 50주년이 되는 임진년(2012년)을 맞이하여 본 학회 표상의 의미를 함께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에 필자는 본 학회 표상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아쉽게도 아직까지 본 학회 표상의 의미가 기술되어 있는 문헌 자료를 찾지 못하였다. 다만 본 학회의 표상이 최근까지 사용되어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대치협')의 이전(구) 표상(그림2, 좌측)과 매우 유사하였으므로 대치협의 (구)표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와 함께 미국치과의사협회(American Dental Association (ADA))와 캐나다 치과의사협회(Canadian Dental Association (CDA))의 표상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본 학회 표상(그림1)의 모양과 구조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모양은 원형이고, 표상의 중앙에는 마치 사람 머리 모양의 형상이 날개 달린 여인(치과의사의 수호성인인 아폴로니아(Apollonia)로 추정됨)의 오른 팔과 치마 끝에 연결되어 있어 마치 한 여인이 머리 모형을 받치고 날아가고 있는 모습의 그림이 있고, 이 여인의 위쪽과 아래쪽에 본 학회의 영문 머리글자인 'KAOA'와 창립년도인 '1962'라는 숫자가 각각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중앙부위 그림의 둘레에는 한 줄로 된 작은 원과 바깥쪽에 두 줄로 된 큰 원이 있으며, 이들 큰 원과 작은 원 사이에는 본 학회의 국문 명칭(대한구강해부학회)과 영문 명칭(The Korean Academy of Oral Anatomy)이 각각

* 교신저자

위쪽과 아래쪽에 기입되어 있다. 본 학회의 중앙부위 그림은 대치협(구)표상(그림2, 좌측)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데, 대치협(구)표상 역시 사람의 머리 형상을 날개 달린 여인이 받치고 날아가는 모습이며, 여인이 받치고 있는 머리부위에 대치협을 의미하는 'KOREA DA'라는 영문 약자가 표기되어 있다.



그림 1. 대한구강해부학회의 표상



그림 2.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표상
(위: 이전 표상, 아래 : 현재 표상)

대치협 (구)표상은 치과의사의 수호여신인 아폴로니아가 사람의 머리 형상을 받치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대치협 (구)

표상의 도안자 및 표상의 도안에 관한 정확한 문헌자료가 밝혀져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치협(구)표상이 일본 의학서적전문출판사인 医学書院 (Igaku-Shoin)의 표상(그림 3)을 모방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고, 이후 많은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중앙대 서혜옥 교수가 디자인한 표상(그림2, 우측)을 2010년 9월 28일 대치협 정기이사회에서 대치협(구)의 새 표상으로 확정하고 현재까지 사용해오고 있다.¹⁻³⁾



그림 3. 医学書院(Igaku-Shoin)의 표상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본 학회 표상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찾지 못한 관계로 정확한 사실은 알기 어려우나, 본 학회의 표상은 창안 당시 본 학회와 대치협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대치협 표상을 근간으로 삼아 그 위에 본 학회의 명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본 학회 및 대치협 표상의 창안 과정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고 대치협을 포함한 몇몇 치과의사 관련 단체의 표상 도안에 사용된 상징적인 인물이나 사물 또는 도형에 대해 주로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본 학회의 표상과 대치협(구) 표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문헌자

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상에 그려진 여인은 아폴로니아로 여겨진다. 그 이유는 서양에서 아폴로니아를 치통과 치과 의사의 수호성인으로 받아들여오고 있기 때문이다.⁴⁻¹²⁾

아폴로니아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만, 아폴로니아에 관한 유일한 문서 자료는 4세기 Caesarea의 주교이며 역사가였던 에우세비우스(Eusebius)가 집필한 교회 역사서(Ecclesiastical History)의 제6권 41장에 기록된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의 디오니시우스(Dionysius) 주교가 안티옥(Antioch)의 파비우스(Fabius) 주교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 남아 있다.^{4.5.12)}

아폴로니아는 로마제국 황제 데시우스(Decius, 249-251)의 카톨릭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인 로마황제 필립(Philip the Arab, 244-249)의 시기인 249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카톨릭 신자로서 순교하였다. 아폴로니아는 카톨릭교회의 집사(deaconess)로서 남다른 독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고 설교에도 뛰어난 솜씨가 있어 많은 알렉산드리아 시민들을 카톨릭 교인으로 인도하였다. 그 당시 카톨릭교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던 한 예언자가 알렉산드리아에 대재앙이 있을 것이라 예언하고, 이교도들을 선동하여 카톨릭교인들을 박해하는 민중 폭동을 일으켰다. 디오니시우스 주교의 편지에는 카톨릭교인 중 한 남자(Metras)와 한 여자(Quinta)가 폭도들에 의해서 붙잡혀 매우 잔인한 고문을 당하고 살해되는 내용과 다른 여

러 카톨릭교인들의 집들이 약탈당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뒤이어 아폴로니아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폭도들이 사람들로부터 높은 신망을 받고 있던 아폴로니아를 붙잡아 그녀의 턱을 심하게 때리고 그녀의 모든 치아를 뽑고 깨뜨린 다음, 장작불을 피워놓고 그들의 불경스러운 표현들을 따라서 반복하지 않으면 태워죽이겠다고 협박하며 계속해서 고문을 가했고, 그런 상황에서 아폴로니아가 갑자기 불속으로 스스로 뛰어들어 죽음을 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4.5.12)}

로마 교회에서 그녀를 성인으로 모시게 된 때는 그로부터 50년 후인 300년이며 그때에 아폴로니아의 기일을 2월 9일로 정하였다. 아폴로니아가 악골과 치아에 심한 고문을 받고서도 믿음을 지키고 성인으로 추대된 연유로, 아폴로니아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치과와 치통의 수호성인으로 추앙받아오고 있다.⁴⁻¹²⁾



그림 4. Saint Apollonia
(Saints.SQPN.com에서 자료인용)

성 아폴로니아에 관한 그림과 조각은 유럽각지에서 볼 수 있다. 대체로 그 모습은 발치검자로 치아를 뽑아들고 있는 것 또는 그녀가 발치의 형벌을 받고 있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4와 그림 5는 각각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Torture of Saint Apollonia (1513, Heilsbronn Cathedral, Bavaria)

다음으로 미국치과의사협회(ADA)와 캐나다치과의사협회(CDA)의 표상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미국치과의사협회(ADA)의 표상(그림 6)은 1965년 11월에 공식적으로 ADA의 표상으로 채택되었는데, 표상의 삼각형 모양은 그리스문자 Δ(delta)로서 dentistry(치의학)를 의미하며, 원 모양은 그리스문자 O(omicron)으로서 odont(치아)를 의미한다. 표상의 배경에 그려져 있는 32개의 앞과 20개의 열매는 각각 영구치아와 유치를 상징하고, 중앙의 펜과 뱀 모양의 도안은 의학의 신(神) 아스클레피오스(그리스어 Asklepios, 라틴어 Aesculapius, 영어 Asclepius)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인 아스클레피안(Asklepian)을 의미하며, 표상의 배경색인 라일락색은 미국에서 치의학을 표시하는 공식 색깔이다.¹³⁾



그림 6. 미국치과의사협회 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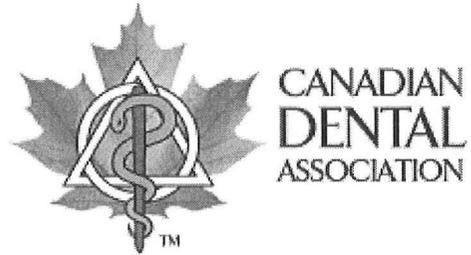


그림 7. 캐나다치과의사협회 표상

캐나다치과의사협회(CDA)의 표상(그림 7)은 ADA의 표상과 유사한데, dentistry와 odont를 의미하는 삼각형과 원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배경에는 나뭇잎과 열매 대신 캐나다를 상징하는 단풍잎을 사용하였고, 중앙부위의 아스클레피안 모양이 ADA 표상과 약간 다르게 변형되어 표시되어 있다. ADA 표상의 뱀은 지팡이에 해당하는 펜 모양의 도형을 시계방향으로 감아 들고 있고, CDA 표상의 뱀은 지팡이에 해당하는 막대기 모양의 도형을 반시계방향으로 감아 들고 있다.

우리는 의료와 관련된 여러 단체들과 병원구급차 및 의료서적 출판사 등의 표

상에서 아스클레피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팡이에 뱀이 감겨있는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하나는 지팡이에 한 마리의 뱀이 감겨있는 형태이고(그림 6-8), 다른 하나는 지팡이에 두 마리의 뱀이 감겨 있는 형태이다(그림 9-10). 전자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인 아스클레피안을 의미하고, 후자는 헤르메스(Hermes)의 지팡이인 카두세우스(Caduceus)를 의미한다.¹⁴⁻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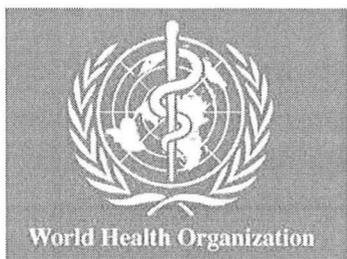


그림 8. 세계보건기구(WHO) 표상



그림 9. 미군 의무부대(USAMC)의 표상



그림 10. 대한의사협회 표상

아스클레피오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의술의 신으로서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 의학의 상징적 존재이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슬픈 탄생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한 때 아폴론이 인간 코로니스(Coronis)를 사랑했던 적이 있다. 코로니스는 아폴론의 아이까지 가졌지만 제우스의 아들(아폴론)을 가차 없이 차 버리고 인간 남자와 결혼해버리자, 아폴론은 코로니스의 배신에 이성을 잃고 여동생 아르테미스(Artemis)을 시켜 코로니스를 죽이도록 하였다. 아르테미스가 자신의 특기인 활쏘기로 코로니스를 단번에 맞추었으나, 코로니스의 뱃속에서 아직 살아있는 태아를 발견하고는 배를 갈라 아이를 꺼내왔다(*아폴론이 직접 활을 쏘아 코로니스를 죽였다는 신화도 있음). 아이를 본 아폴론은 다시 이성을 찾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들을 잘 키우리라 다짐을 하고서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폴론은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신화계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인 키론(Chiron)에게 아들의 교육을 맡겼다. 아스클레피오스는 키론 밑에서 자라면서 의술을 잘 배우고 익혀 죽은 사람도 되살릴 만큼 훌륭한 의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¹⁴⁻¹⁶⁾

아스클레피오스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상징은 한 마리의 뱀이 휘감고 있는 지팡이 즉, 아스클레피안이다. 지팡이와 한 마리 뱀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이 된 이유를 설명하는 대표적 신화는 다음과 같다. “아스클레피오스가 제우스의 번개를 맞아 죽은 글라우코스(Glaukos)를 치료

하던 중 뱀 한 마리가 방안으로 들어왔는데 이에 깜짝 놀란 아스클레피오스가 자신의 지팡이로 뱀을 내리쳐 죽였다. 잠시 후 또 한 마리의 뱀이 입에 약초를 물고 들어와 죽은 뱀의 입 위에 올려놓아 두자 죽었던 뱀이 다시 살아났고, 이것을 본 아스클레피오스는 뱀이 했던 대로 그 약초를 글라우코스의 입에 갖다 대어 그를 살려 내었다. 이후로 그는 존경의 의미로 자신의 지팡이를 휘감고 있는 한 마리의 뱀을 자신의 상징으로 삼았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는 고대시대 동안 의학의 상징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중세에 들어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 사용이 억압되었다가 종교개혁 이후 다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14,17)}

시작 시점이 모호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헤르메스의 지팡이가 의약분야의 상징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자 인간에 대한 신들의 전령(messenger) 역할을 담당했고, 목자(양치기, 소 치는 사람)와 도둑, 웅변가, 상인 및 연금술사의 신으로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날개 달린 신을 신고 다녔고, 왼손에는 전령의 지팡이(그리스어 Kerykeion, 라틴어 Caduceus)를 들고 다녔다.¹⁴⁻¹⁶⁾ 현재 헤르메스 지팡이인 카두세우스가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 미군의 무부대의 표상(그림 9)과 대한의사협회의 표상(그림 10)을 들 수 있다.

프리들랜더(Friedlander)의 연구보고(1992)에 의하면 19세기부터 북미에서 의학의 표상으로 헤르메스의 지팡이를 사용하게 된 것은 미국에 많은 의학서적을

판매해왔던 런던의 처칠 출판사의 표상이 헤르메스의 지팡이(카두세우스)였고, 처칠 출판사의 의학서적들에 찍힌 카두세우스가 미국인들에게 매우 친숙하게 된 나머지 19세기 이후로 미국 출판사들이 이 표상을 의학의 상징으로 착각하여 의학 관련 서적에 이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가 널리 퍼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의 군대였다. 1902년에 미군의무사령부(US Army Medical Command) 제복 견장 표상으로 미군 군의관이자 외과의사인 레이놀즈(Federic Reynolds)가 제안한 카두세우스를 핵심 상징물로 사용한 표상(그림 11)이 채택되었다. 당시 헤르메스의 지팡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군의감(Surgeon General)이 채택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안한 레이놀즈 대위의 집요한 고집으로 인해 마침내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15,18)} 결론적으로 미군의무부대가 헤르메스의 지팡이를 휘장으로 선택한 것은 고대 신화 상징에 대한 잘못된 이해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1. 미군의무사령부(USAMC)의 견장 표상

이상으로 대한해부학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미국치과의사협회 및 캐나다치과의사협회의 표상과 관련하여 각 표상들이 의미하는 바와 표상에 이용된 역사적 사실과 고대 신화에 대해 매우 간단히 언급하였다.

한 단체의 표상은 그 단체의 정체성을 함유하고 있는 상징물로서 회원들은 물론 대중에게도 자신들의 단체의 특성과 추구하는 가치를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대한구강해부학회의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 우리가 사용해온 학회의 표상이 어떠한 의미를 표방하고 있는 지, 학회의 정체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지, 학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할 때 향후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적절히 부합되는 지, 회원 모두가 한번쯤 깊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치의신보 2009-02-05 (제1710호), 7면
2. 치의신보 2009-11-05 (제1786호), 34면
3. 치의신보 2010-10-04 (제1875호), 3면
4. CATHOLIC ENCYCLOPEDIA: St. Apollonia : <http://www.newadvent.org/cathen/01617c.htm>
5. Saint Apollonia :. http://en.wikipedia.org/wiki/Saint_Apollonia
6. 이덕일 : Saint Apollonia에 관한 제사료의 종합정리.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2(2):7-8, 1991
7. Hass LF : St Apollonia. J Neurol Neurosurg Psychiatry 60(5): 558, 1996
8. Beal JF : Representations of St Apollonia in British churches. Dent Hist. May;(30):3-19, 1996
9. Donnelly R : St. Apollonia: the patron Saint of Dentistry. J Hist Dent. 53(3):97-100, 2005
10. Pearn J: Enduring symbols of dentistry: international metaphors of dental science. Br Dent J. 205:615-621, 2008
11. Skrobonja A, Rotschild V and Culina T : St Apollonia's tooth - a relic in the cathedral treasury in Rab (Croatia). Br Dent J 207:499-502, 2009
12. Kelley HA : Saint Apollonia. J Natl Dent Association, 1919. (<http://saints.sqpn.com/saint-apollonia-the-patron-saint-of-dentistry/> 에서 재인용)
13. http://www.ada.org/sections/publicResources/images/emblem_color.jpg
14. 신영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소사: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와 헤르메스의 지팡이. 의사학 16(1):21-35, 2007
15. 박지욱. 메디컬 오디세이. 도서출판 한울. 2007

16. Touraj Nayernouri. Asclepius, Caduceus, and Simurgh as Medical Symbols. Arch Iran Med 13(1):61-68, 2010.
17. Edelstein EJ and Edelstein L : Asclepius: Collec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testimonies. Vol 1 and 2.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 1998. (Wilcox RA and Whitman EM : The symbol of modern medicine: why one snake is more than two.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38(8):673에서 재인용)(신영정 : 대한의사협회 휘장의 소사: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와 헤르메스의 지팡이. 의사학 16(1): 21-35, 2007에서 재인용)
18. FRIEDLANDER WJ : The Golden Wand of Medicine: A History of the Caduceus Symbol in Medicine. Greenwood Press, 1992 (신영정 : 대한의사협회 휘장의 소사: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와 헤르메스의 지팡이. 의사학 16(1): 21-35, 2007에서 재인용)